

강진군, 먹깨비 할인 이벤트 지역 경제 활력 ‘보탬’

하맥 축제 쿠폰 지급 매출 88% ↑
6231건 주문 1억6200만원 기록
매출 상승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지역상품권 결제시 10%할인

강진군이 지난달 19일부터 31일 까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제2회 강진 하맥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한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매출로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는 평이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하맥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는 ‘강진 상권 활성화 특별 이벤트’의 일환으로 하맥축제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는 최대 5000원, 그 외 기간인 지난달 19일부터



강진군이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먹깨비 할인 쿠폰.

강진군 제공

터 28일까지는 매일 3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했다.

강진군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추진했던 13일간 주문 수는 총 6231건에 1억 6200여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이

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3건, 7600만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매출이 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먹깨비 자체 할인 이벤트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해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이를 통해 매출을 상승시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는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군은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를 통해 먹깨비 할인 이벤트와 함께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 왔다.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전남도에서 민·관협력형 배달앱으로 출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군의 가맹점 수는 253개소, 누적 회원 수는 5755명, 누적 주문수는 15만여 건, 총매출액은 37억6000여만원으

로 명실상부하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총매출액 1위를 달성함으로써 강진군에서의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향한 지역 소상공인들과 군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검증받았다.

먹깨비는 국내 배달앱 중 최저 중개수수료(1.5%), 가입비 및 광고료 무료,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할인 적용 등 장점이 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기능을 톡톡히 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강진군민과 소상공인의 물가 부담 완화와 매출 증가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을 고안해 내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 점검 영광군, 이달 13일까지

영광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관내 굴비상가·재래시장·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수산물·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현황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점검, 원산지 위장판매 범위 등에 대한 주요 단속 사례 및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 안내 등으로 수산물 수입·제조 및 가공 유통, 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포맷·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항 및 벌칙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주말5일장 등 버스킹 참가자 모집 광양시, 9일까지 27개팀

광양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킹(거리공연) 지원에 나선다.

광양시는 ‘주말 5일장’ 및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 거리공연에서 재능과 열정을 보여줄 지역예술인을 9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주소지가 광양이며 공연 역량을 갖춘 사람(단체)이며 장르에 제한은 없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9일까지 참가신청서, 공연활동사진 등을 관련 부서 담당자 이메일(moonlsy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는 심사를 거쳐 27개 팀(팀당 최대 5인 이하)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결과는 23일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공연비(교통비, 식비 포함)는 1~2인은 30만원, 3인 이상의 팀은 5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 참가 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예술과(061-797-1992)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공연 기간은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로 총 6회(회당 90분 내외 3개팀) 운영한다.

공연 장소는 광양읍 오일장과(주말 장 버스킹) 서천수변무대, 서천광장본무대 3개소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김병덕문화예술과장은 “지역예술인들이 이번 거리공연을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로 삼길 바라며 실력 있는 버스커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추석맞이 사회공헌활동 K-water 주암호사랑회

K-water 주암호사랑회 물사랑나눔단(단장 오병동)은 5일 순천 한아름 주야간 보호센터에 후원물품(공기정정기)을 전달했다.

추석을 맞아해 K-water 임직원이 매달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사회공헌활동비로 소외된 이웃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K-water 주암담지사는 담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완도군, 추석맞이 수산물 기획전 이달 12일까지 20% 할인 판매

완도군이 ‘추석 맞이 수산물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기획전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완도산 수산물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에서는 12일까지 ‘2024 풍요로운 추석 기획전’을 열어 활 전복과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을 각각 20% 할인 판매한다.

(사)한국전북유동협회와 (사)남도전북연합회에서는 ‘대한민국 수산 대전’을 통해 기본 20%에 추가 20%를 적용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전복을 판매 중이다.

주문은 ‘제철장터(직영물, 육선)’과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전복 가격은 1kg 기준 8~9미는 2만5200원, 9~11미는 2만2200원, 13~14미는 2만800원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할인전을 통해 추석 명절에 맛과 품질이 좋은 완도산 수산물을 가족들과 함께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함평군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이 노후된 벽을 수리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

함평군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 주거환경 봉사를 진행했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2~3일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3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개보수 작업은 추석 명절 전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요청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됐으며, 읍 복지기동대원, 직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은 이틀에 걸쳐 들뜨고 노후된 벽지, 장판과 누

수되고 있는 싱크대를 교체했다.

거동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줌으로써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김영남 복지기동대장은 “우리의 활동이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기동대는 조건 없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광양시, 안전신문고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11월30일까지

광양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에서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 유형은 총 5개로 가을철 빈발하는 신고와 최근 이슈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축제·행사·인파 밀집 유형 신고 대상에

는 △인파 밀집 우려 △축제장 시설 파손 △전기시설 방치 △안전띠 미설치가 있으며, 어린이 안전 유형 신고 대상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파손 △놀이시설 파손 △불법제품, 불량식품, 불건전 광고 △보도블럭 파손 등이 있다.

풍수해 유형에서는 △강풍 위험(시설물 낙하 등) △토사유출 △빗물받이 막힘 △위험구역 관리 미흡을 신고할 수 있고, 산불·화재 유형에서는 △불법취사·소각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가 신고 대상이다.

전기차 충전구역도 신고 유형에 포함돼 있다. 시민들은 △전기차 충전구역 위험 요소(침수우려 등) △불법주차(장기방치 등)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가능하다.

안전 신고 유형을 선택한 후 ‘가을철 집중신고’를 선택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의 ‘퀵메뉴’에 있는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시길 바라며 신고가 보고되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광양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